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부진사업 해결
현장점검 정상화 집중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는 지난 27일 3분기 주요 부진사업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부진으로 분류된 사업장들을 방문해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3분기 주요부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지연 및 부진 사업의 원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매화공휴마을 원터 조성사업, △금종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향 건설, △여촌뉴딜 300사업, △자동소하천 정비사업, △변신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2단계), △격포항 공항연안정비사업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현장에서 사업별 추진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 행정절차적 문제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신태인도서관
손보미 작가 초청 강연

2022년 '불장난'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손보미 작가가 오는 11월 8일 정읍 신태인도서관을 찾는다. 손 작가는 '나를 만든 문장'이라는 주제로 소설가가 되기까지 영향을 준 작품·문장에 대해 지역 독자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손보미 작가는 2009년 '침묵'으로 21세기문학, 2011년 '담요'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소설가로 등단했다. 이후 젊은작가상·대산문학상·이효석 문학상·이상문학상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출간된 '세이프시티'(2025)를 비롯해 '사랑의 꿈'(2023)·'작은동네'(2020) 등 저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신태인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소설가 김숨·정보라 작가와 정진과 의사 문요한 작가 등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제52회 고창모양성제 오늘 개막

‘고창愛 빠지다, 모양愛 물들다’...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 참석 국제적 위상 높여

‘고창愛 빠지다, 모양愛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한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29일 화려하게 개막한다.

올해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읍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고창읍성 쌓기 챌린지 프로그램’과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답성놀이 흥보관, QR 탐험대:사랑愛 빠진 모양 답성놀이 릴스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선보인다.

특히 11월1일에는 모양성제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가 한복을 곁들여 펼쳐지는 행렬로 펼쳐진다. ‘우리 누군가의 히어로’라는 주제로 1000여명의 음면 주민들이 함께 거리퍼레이드도 진행.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오늘 저녁 7시 고창읍성 특설무대에서 열릴 개막식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대시판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고창군은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품격을 살리고,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제52회 고창모양성제는 11월2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 전통예술체험마을, 꽃정원, 고창그린마루 일원서 열린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모양성제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세계로 확장하는 ‘완성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 흥보관, QR 탐험대:사랑愛 빠진 모양 답성놀이 릴스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선보인다.

특히 11월1일에는 모양성제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가 한복을 곁들여 펼쳐지는 행렬로 펼쳐진다. ‘우리 누군가의 히어로’라는 주제로 1000여명의 음면 주민들이 함께 거리퍼레이드도 진행.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오늘 저녁 7시 고창읍성 특설무대에서 열릴 개막식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대시판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고창군은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품격을 살리고,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제52회 고창모양성제는 11월2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 전통예술체험마을, 꽃정원, 고창그린마루 일원서 열린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모양성제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세계로 확장하는 ‘완성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국 최초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 2026년 시행

부안군, 임신 단계부터 의료비 위험 선제 보장... 보험료 80% 지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저출산과 고위험 임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전국 최초로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추가해 임신 중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선천성 이상이나 미숙아 등의 사유로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임신 단계에서의 가입이 중요하다.

군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임신·출산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사전에 분산하고 출생 이전부터 보호하는 출산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벽지 지역이 많은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고 출산 후 의료비 및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컸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임신부와 태아의 실질적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출산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로 태아보험 가입증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보험료의 80%를 월 1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태아(보험 가입일)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최대 1년 10개월이다.

또 임신부가 원하는 보장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실용적인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로 태아보험 가입증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보험료의 80%를 월 1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태아(보험 가입일)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최대 1년 10개월이다.

또 임신부가 원하는 보장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실용적인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현안사업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면담을 통해, 부안군 현안사업 6건(국도23호(부안~고창), 국도77호(노을대교), 국도30호(보안~진서, 진서면 석포~운호, 진서면 운호~변산면 격포), 변산면 합구교차로)과 관련된 사업반영 및 개선을 건의했다.

국도23호 4차선 도로 미확포장(부안군 행안면 ~ 고창군 흥덕면) 25.5km 구간이 총사업비 2,153억원(국비)으로 2030년 12월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



년 9월 국토 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착공했으나 국도23호(부안~고창) 4차선 도로확포장사업 금년 예산은 1,507백만원이며, 금년 부터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착수하여 명년에는 본격적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다.

국도23호(부안~고창) 4차선 확포장사업 2공구(보안~행안) 구간 상서면 유정 교차로에서 교차교차로 2차로 신설 구간 5.9km를 병목현상 해소 차원에서 4차선 도로확포장을 건의했다.

또한 국도77호 노을대교는 2차선에서 익스트림 관광형 4차선 도로와 인도, 자전거도로 설치 건의와 국도30호 보안~진서 도로구간 예비타당성 면제 건의, 진서면 석포~운호 도로구간 조기 완공 건의, 진서면 운호~변산면 격포 개선 건의, 변산면 합구교차로 신설 등 부안군 현안사업에 대해 반영 및 개선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파 대책부터 시민의 날까지

이학수 정읍시장, 읍·면·동장과 현안 논의

정읍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소통 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을 위한 겨울철 시책을 점검하며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국소장·23개 읍·면·동장, 9개 시 관계부서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가올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읍·면·동의 시책들을 공유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시장은 한파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한파센터 난방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폭설에 대비해 상습 결빙구간에 제설함을 설치하는 등 꼼꼼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일 개최되는 ‘제31회 정읍시민의



날’·2025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했다.

이 시장은 “행정에 대한 신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부터 나온다”라며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읍·면·동장 소통 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배, 황토의 맛 신고 미국으로 향하다

고창군 대표 특산 과일 ‘고창배’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고창배영농조합법인(대표 신점식)은 28일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대미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작업과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물량은 신고배 14톤, 약 5300만원 규모다. 미국, 대만 등 올해 약 300톤을 수출하며 약 10억원 정도의 수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행시에는 심덕섭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행정 관계자, 농가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수출을 축하했다.

고창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 서해안 해풍을 맞아 성장해 당도가 높고 과육이 연하며 껍질이 얇아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신점식 대표는 “조합원들이 정성을 다해 재배한 고창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오세훈씨, 전북 귀농귀촌 공모전 ‘우수상’

고창군 귀농인인 오세훈씨(57)가 지난 24일 열린 ‘2025 전북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모전’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창군 대표로 참가한 오세훈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2021년 고창군이 운영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하며 귀농의 길을 택했다.

초기에는 농지 확보와 지역 적응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오 씨는 귀농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정보화, 차별화, 기능성 제품 개발’을 꼽았다.

그는 운실이 없는 노지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여 대마(헴프)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마 커



피 △대마 종자유 △대마 단백질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출시해 차별화된 농업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오씨는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 지역민과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상생형 귀농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세훈 씨는 “귀농은 도전이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